2014. 06. 11

POSRI 보고서

남아공 경제가 흔들린다

서상현 수석연구원, 경제·정보분석센터 (unisa21@posri.re.kr)

[목 차]

1. 흔들리는 남아공 경제
2. 경제악화의 국내외 요인들
3. 주마 2기 정부, 경제회복에 집중
4. 종합 및 시사점

posco
포스코경영연구소

Executive Summary

○ **남아공, 최근 성장 저하로 아프리카 경제대국 위상 흔들리고 있음**

- 2013년 남아공 경제성장률은 1.9%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였으며, 2014년 성장률도 2.4% 전망('14.4.8일 IMF 발표)
- 가계부채 증가, 민간소비 성장률 둔화 그리고 환율 상승에도 불구한 수출 증가 둔화 등이 경제성장률 회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

○ **최근 산업 전반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파업과 수출감소 등에 의한 무역 및 경상수지 적자 확대로 외환위기 가능성도 고조되고 있음**

- 특히 경상수지 및 재정적자 증대로 F5(Fragile Five · 5대 취약국) 국가 중에서 외환위기 가능성이 터키 다음 높은 것으로 조사됨
- 2013년 남아공 정부 재정적자는 GDP 대비 4.8% 수준. 2014년에는 4.3%, 2015년 3.8%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(IMF)

○ **정치불안 및 경제적 어려움 속에 실시된 5.7일 총선에서 집권당 ANC는 득표율 62.2%로 압승**

- 지난 선거(2009) 득표율(65.9%)에 비해 다소 하락. 반면 제1 야당인 민주동맹(DA)는 22.2%로 지난 총선(16.7%)에 비해 약진함
- 이번 총선에서 가장 큰 관심을 받았던 극좌 성향의 경제자유투사(EFF)는 6.3%의 득표율로 단숨에 제3당으로 부상

○ **ANC의 재집권으로 정책적 불확실성은 낮아졌지만, 선거기간에 쟁점화된 흑백간의 빈부격차와 높은 실업률 해소는 여전히 문제점으로 대두될 전망**

- 특히 극좌 성향의 EFF의 급부상으로 남아공 정치권에서 토지 및 광산의 국유화 논쟁이 다시 쟁점화될 조짐

○ **그러나 외국인 투자 유입이 절실한 남아공으로는 광산 국유화 등 급진적인 경제정책을 도입하기 쉽지 않을 전망**

- 총선 승리 이후 가진 연설에서 주마대통령은 자신의 2기 행정부에서는 보다 친기업적인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함
- 특히, 국가개발계획(NDP)의 실행과 경제성장 및 일자리 창출에 주력해야 할 주마 2기 행정부로서는 외국인 투자가 절실한 상황임

○ **국내기업, 최근 남아공의 성장 둔화 및 정치 불확실성 대비책 마련해야**

- 선거결과, 주마 대통령의 재집권이 결정되었지만 단기적으로는 남아공의 정치 및 경제 불확실성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
- 따라서 남아공 진출 한국기업들은 남아공 정부의 정책변동성 등을 유의깊게 모니터링 해야 함

1. 흔들리는 남아공 경제

□ 남아공, 아프리카 최대 경제대국이지만 최근 경제성장 저하로 위상이 흔들리고 있음

○ **실제로 최근 나이지리아는 새로운 산정기준으로 집계한 GDP 방식으로 지난해 GDP가 5,100억 달러에 달했다고 발표**

- 동 기간 GDP 3,720억 달러에 그친 남아공을 제치고 아프리카 1위 부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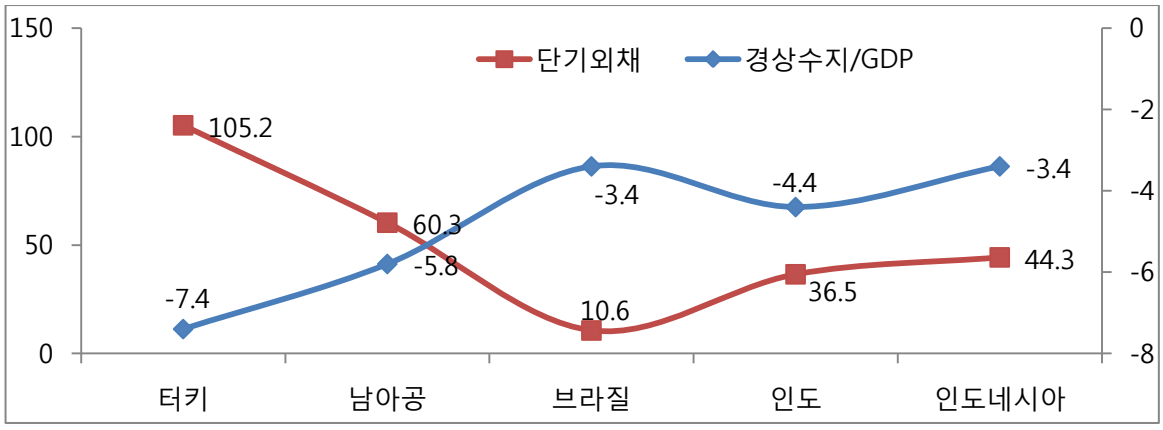
○ **2013년 남아공 경제성장률은 1.9%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 기록, 2014년 성장률도 2.4%에 그칠 전망('14.4.8일 IMF 발표)**

- 가계부채 증가, 민간소비 성장률 둔화 그리고 환율 상승에도 불구 수출 증가 둔화 등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

○ **특히 경상수지 및 재정적자 중대로 F5(Fragile Five · 5대 취약국) 국가 중에서 외환위기 가능성이 터키 다음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됨**

- 남아공 경상수지 적자와 단기외채 비율이 터키 다음으로 악화됨
- 또한 남아공 정부 재정적자는 2013년 GDP 대비 4.8%로 나타남
- IMF에 따르면, 남아공 재정적자는 GDP대비 2014년 4.3%, 2015년 3.8%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되며, 정부 총 부채규모 역시 2016년 GDP의 49%에 달할 것으로 보임

<F5 국가의 GDP 대비 경상수지 및 단기외채 비율('13년, %)>



* 출처: IMF, 2014

○ **정부재정수지 악화 등에 따라 무디스와 S&P는 최근 남아공의 신용등급을 부정적으로 전망, 2014년 하반기 신용등급 강등시킬 가능성 높음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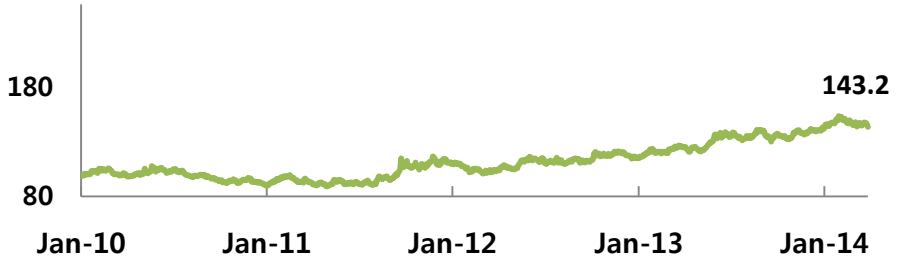
- Fitch는 2013년 12월 19일 남아공 국가신용등급은 BBB, 외화채권 디폴트 등급은 BBB+로 종전과 같이 유지한다고 발표함

○ **2014년 경상수지는 GDP의 5.5% 적자를 기록, 전년대비 다소 개선될 전망이지만 외국인 투자 동향에 따라 적자폭은 달라질 것으로 평가됨**

- 무역 및 경상수지 적자 지속으로 란드화 가치도 약세기조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

-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증가하고 신흥국 위험이 부각되면서 란드화는 2013년 말, 연초 대비 25% 가까이 하락
- Trading Economics는 2014년 평균 환율을 R10.74/$1, 2015년 R10.94/$1로 전망. 그러면서 R11/$를 넘거나 R9/$대로 떨어지지는 않겠으나 2014년에도 여전히 변동이 심할 것으로 내다봄

<환율(미 달러 대비, 란드)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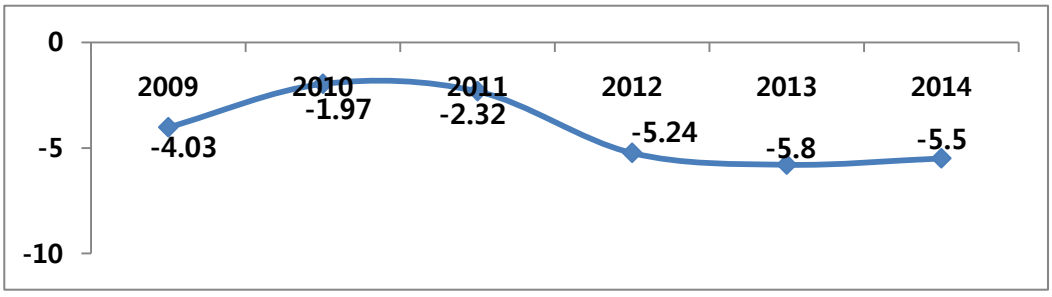
* 출처: Federal Reserve Board, 2010년 초 환율=100기준

□ 2013년 경상 및 무역수지 적자 악화로 대외계정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진 상황이며 2014년에도 지속될 전망

○ **이는 란드화 가치 하락에도 불구, 광물생산 부진, 주요 수출시장인 유럽 경기의 더딘 회복, 인프라 부족 등 비 우호적인 생산환경으로 경상 및 무역수지 악화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**

- 특히 만성적인 경상수지 적자를 변동성 높은 해외자금을 통해 충당 하면서 최근 좋지 않은 대외여건 하에서 외환수급 구조가 더욱 불안해지는 악순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임

<경상수지/GDP대비(%)>



* 출처: South African Reserve Bank

○ **이처럼 경제상황이 호전되지 않으면서 현정부가 계획 중인 2020년까지 연 평균 5%대의 성장률 달성도 어려울 전망**

- 특히 현 25% 수준의 실업률을 14%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목표 달성도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흑인들의 불만 증대 예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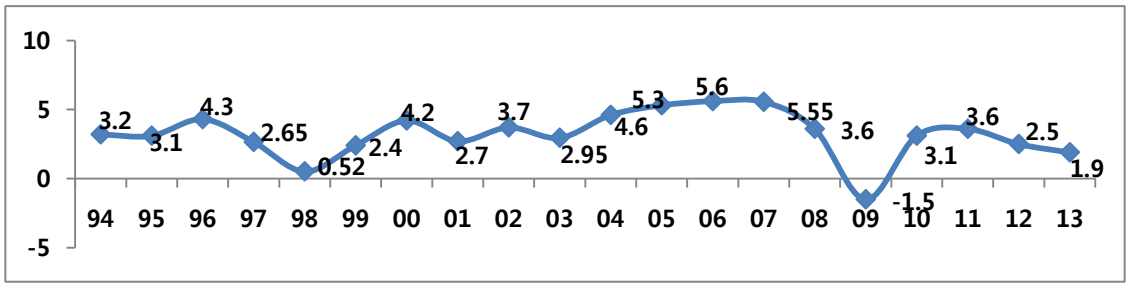
⇒ 중단기적으로 인프라 확충과 규제 완화, 정책 일관성 등 투자환경 개선 통해 수출 경쟁력 확보와 불안정한 외환수급 구조를 개선해야 함

2. 경제 악화의 국내외 요인들

□ 남아공은 1994년 흑인정부 수립 이후 꾸준히 경제성장을 이루었으나 최근 대내외적인 부정적 요소로 경제성장 모멘텀 약화

○ 특히 연평균 5% 이상 성장으로 가난 반감(半減)과 일자리 창출을 주도하려던 현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불신감도 높아지고 있음

<남아공 흑인정부 수립 이후 경제 성장 현황>



* 출처: Global Insight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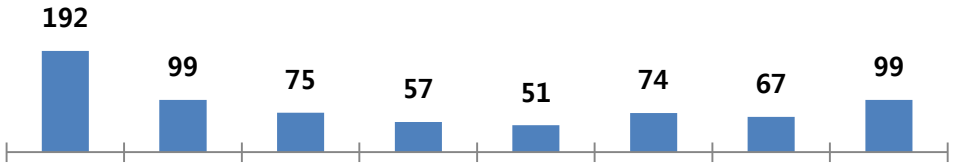
1) 경제악화의 국내요인

□ 강성노조와 빈발하는 파업

○ **남아공은 정부 자체가 친노조 성향임. 이는 집권당 ANC가 최대 노동조합인 남아프리카노동조합(COSATU)과 연립정부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으로 정부의 노동조합 파업에 대한 미온적 대응은 빈번한 파업을 불러옴**

- 2012년 백금광산에서 임금인상 요구로 시작된 파업은 자동차 등 제조업 전반에 걸쳐 확산되었으며, 이로 인한 투자환경 악화로 2013년 신용등급 강등과 경제성장 둔화 초래
- 2014년 벽두부터 백금광산의 파업이 재개되어 2012년, 2013년에 이어 파업 도미노 현상의 재연 가능성이 있음

<남아공 연간 조업중단 횟수>



* 출처: 남아공 노동부, NICE 신용평가

⇒ 2005년 이후 감소추세였던 연간 조업중단 횟수는 2012년 마리카나(Marikana) 광산 유혈사태와 더불어 다시 증가로 노동시장 상황 악화

○ **광산 파업으로 남아공 최대 수출품인 광물의 수출부진으로도 이어짐**
- 파업의 여파로 '14년 1분기 남아공 광물 수출은 전분기비 16.7% 급락함

□ 인프라 부족

○ **아프리카 최대 인프라 선진국이지만, 산업 전반의 전력부족 해소 지연**
- 전력 수요 급증에도 불구하고 전력생산 인프라의 미비로 제한송전을 실시하는 등 전력난 지속
- 특히 광산과 제조업 등 전력수요가 많은 산업에 타격이 큼
- 이는 산업생산에 손실을 초래함은 물론 외국인투자 유치에도 장애물이 되고 있음

○ **2012년 8월부터 추진 중인 국가개발계획을 통해 에너지, 통신, 교통 등의 인프라 확충 본격화. 이를 위해 민간과 외국 자본의 투자 유치를 추진하고 있음**
- 인프라 확충계획을 통해 2014년까지 총 1,114억 달러 규모의 43개 공공 프로젝트 추진
- 그러나 고질적인 부정부패와 예산부족 등으로 아직까지 성과 미흡

2) 경제악화의 대외요인

□ 유럽 경제회복 지연과 신흥국 성장둔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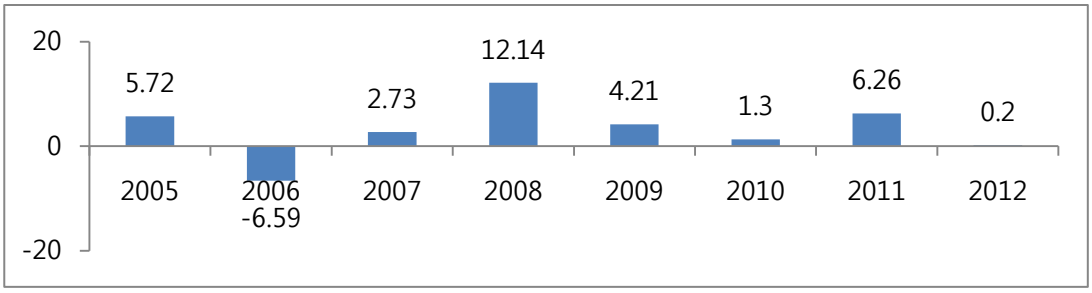
○ **남아공 최대 수출지역인 유럽연합의 경제회복 지연으로 수출 증대 어려움**
- 남아공의 공산품 수출시장에서 유럽이 차지하는 비중은 28% 이상. 하지만 2013년 실제 수출 실적은 지난 2007년 대비 8% 감소세를 보임

○ **또한 중국과 인도의 성장둔화로 인한 국제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자원 수출 의존도가 높은 남아공은 큰 타격을 받고 있음**
- 특히 남아공 최대 교역국으로 부상한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는 남아공 광물수출에 큰 타격을 가하고 있음
- 백금, 철광석, 석탄 등 광물자원은 남아공 최대 수출품목으로 전체 수출의 약 25%를 차지하고 있음

□ 미 테이퍼링과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

○ **2013년 말부터 본격화한 미 테이퍼링의 영향으로 남아공으로 유입되는 포트폴리오 투자가 크게 줄어듦**
- 2013년, 전년도 대비 포트폴리오 자금은 GDP대비 0.1% 순유입
- 또한 FDI 역시 순유입이 2012~2013년 평균 GDP대비 0.6%에 그침

<FDI 순 유입액(십억 불)>



* 출처: World Bank

○ 외부로부터의 자금조달 어려움으로 환율이 상승하고 대외부채 역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 → 외환보유고는 줄어듦

- 총 외채잔액은 GDP의 50% 미만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나, 외환보유액이 단기적 지불수요(단기외채+3개월분 수입액)의 71% 수준으로 취약성이 높아 유동성위기 발생 가능성이 있음

3. 주마 2기 정부, 경제회복에 집중

□ 지난 5월 7일 실시된 남아공 총선 결과 집권당 ANC 62.2% 득표율로 1위 차지. 이로써 ANC는 20년 넘는 장기 집권체제 구축

○ 그러나 과거 선거(2009) 득표율(65.9%)에 비해 다소 하락. 반면 제1 야당인 민주동맹(DA)의 득표율은 22.2%로 지난 총선(16.7%)에 비해 약진함

- 올 총선에서 가장 큰 관심을 받았던 극좌 성향의 경제자유투사(EFF)는 6.3%의 득표율로 단숨에 제 3당으로 부상
- DA와 EFF가 이번 총선에서 비교적 양호한 성적을 낸 것은 주마 대통령을 비롯한 ANC 지도부의 부패 스캔들과 높은 빈부격차, 사회불안 등에 불만을 품은 국민들의 심리가 작용한 것으로 분석

<남아공 주요 정당 성향 및 향후 정책방향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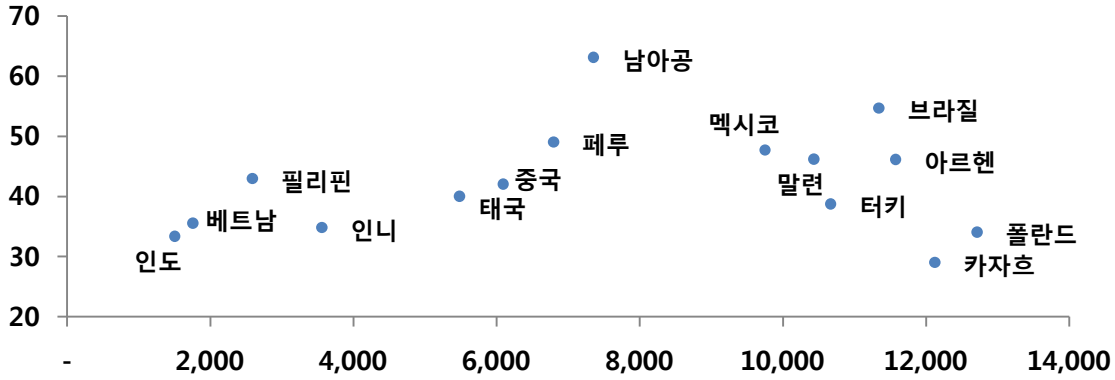
	ANC(집권당)	DA(제1 야당)	EFF(제 2 야당)
성향	온건 좌파	우파	극 좌파
정책방향	흑인우대정책 확대	친기업적 정책	광산, 금융 국유화 추진

□ 이번 선거 결과로 現 대통령인 주마의 연임이 확정적이며 경제정책 등도 1기 정부와 크게 다르지 않을 전망

○ 그러나 차기 정부는 증가하는 빈부격차와 범죄율, 노동불안을 감소시키는 한편 추락한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려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음

- 남아공은 세계에서 가장 큰 빈부격차를 보이고 있는데(지니 계수 0.63) 이는 차기 행정부의 가장 중요한 해결과제 중 하나임

<남아공 지니 계수 수준>



* 출처: World Bank

○ **특히 정치는 흑인들이, 주요 경제는 백인들이 장악하고 있어 흑백간의 빈부격차가 지속되고 있음**

- 백인들은 남아공 기업 임원진의 3분의 2를 차지한 반면, 흑인들은 19.8%에 불과. 백인 가정의 평균 소득은 인구 80%를 차지하고 있는 흑인보다 6배 많음(남아공 노동부 통계)
- 또한 남아공 인종관계연구소(IPR)의 2013년 보고서에 따르면, 흑인 40%는 빈곤층으로 분류되지만 백인의 경우 1%에 불과

○ **극좌 성향의 EFF의 급부상으로 남아공 정치권에서 토지 및 광산의 국유화 논쟁이 다시 쟁점화될 전망**

- ANC 역시 총선 득표율 하락으로 저소득층의 지지기반 확보를 위해 기존보다 더욱 좌편향적인 정책을 추진할 가능성도 높음
- 이러한 논쟁은 외국인 투자 유입의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됨

□ 외국인 투자 유입이 절실한 남아공으로는 광산국유화 등 급진적인 경제정책 도입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전망

○ **주마 대통령은 총선 승리 이후 가진 연설에서 자신의 2기 행정부에서는 보다 친기업적인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함**

- 특히, 국가개발계획(NDP)의 실행과 경제성장 및 일자리 창출에 주력해야 할 주마 2기 행정부로서는 외국인 투자가 절실한 상황임

○ **EFF 약진으로 인한 정치적 논쟁 재연에도 불구, 경제는 거시경제운영 측면에서 비교적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향후 점진적 경제 회복 가능성도 높음**

- 금융시장 역시 선진국 수준의 발달된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으며 아직 IMF의 구제금융을 받은 경험이 없음

- 이밖에 풍부한 광물자원과 아프리카 최대 내수시장, 양호한 산업기반 등 성장 잠재력이 높음

※ 아프리카에서의 남아공 위상: 아프리카 전체 GDP의 약 22%, 아프리카 전체 제조업 생산의 40%, 아프리카 전체 전력생산의 약 45% 차지 등 아프리카에서 가장 선진화된 경제구조를 갖고 있음

○ **2014년에는 세계경기 회복에 따른 수출 증가로 경제성장이 나아질 듯.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 비중은 전년보다 개선될 전망임**

4. 종합 및 시사점

□ **지난 5월 7일 실시된 총선에서 현 집권당 ANC가 승리함으로써 남아공의 정치, 경제적 불확실성은 낮아짐**

○ **그러나 강경노조에 의한 파업 증가와 유럽 경제성장 둔화 등에 의한 경제환경 어려움으로 경제 모멘텀 회복 지연 전망**

- 특히 집권당 ANC의 자기개혁 의지가 부족하고 국내외 경제문제들이 복잡하게 엉켜 기존 현안이 단기간에 해결될 가능성은 낮아 보임
- 또한 이번 총선에서 무능과 부패로 요약되는 집권당 ANC에 대한 불만이 적지 않았다는 게 부담. 대안 부재로 재집권하였지만, 역대 최저 득표율을 기록함으로써 민심이반을 실감함

※ 역대 총선에서 ANC는 민주화 원년인 1994년 62.7%를 득표한 이후 1999년 66.4%, 2004년 69.7%, 2009년 65.9%의 표를 얻은 바 있음

○ **반면, 2012년 ANC에서 출당 조치된 급좌성향 줄리어스 말레마가 이끄는 EFF는 첫 총선에서 6.3%의 득표율을 올리며 제2야당에 자리매김, 향후 정국의 변수로 작용할 전망**

- EFF는 광산 및 은행의 국유화와 백인소유 토지의 무상몰수 등을 주장하며 가난한 흑인들의 절대적 지지를 받고 있음. 향후 의회에서 그들의 주장을 더욱 강력히 요구할 것으로 예상됨

○ **따라서 EFF의 영향력이 강해질수록 남아공 정치, 경제 불안요소가 증대할 전망**

□ **남아공은 아프리카 유일의 G20 회원국이며 또한 아프리카 국가들 중 한국과의 교역 및 투자가 가장 많은 국가임**

○ **양국간의 교역은 약 45억 달러('13년 기준)이며 남아공에 대한 국내 기업의 투자는 2.5억 달러 수준임**

-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은 자동차 및 전자제품 등이며 주요 수입품은 철광석 등 광물자원이 주를 이룸
- 투자는 초기에 광물자원에 대한 투자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전자제품 등 제조업에 대한 투자도 증가하고 있음

○ **국내기업, 최근 남아공의 성장 둔화 및 정치 불확실성 대비책 마련해야**

- 선거결과, 주마 대통령의 재집권이 결정되었지만 남아공의 정치 및 경제 불확실성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
- 따라서 남아공 진출 한국기업들은 남아공 정부의 정책변동성 등을 유의 깊게 모니터링 해야 함

이 자료에 나타난 내용은 포스코경영연구소의 공식 견해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.

[참고자료]

[인터뷰 및 공개자료]

NICE 신용평가, "남아공 총선, 극좌파 정치세력 부상 여부에 주목해야", Global issue, 2014.4.30.

Global Insight, 2014.2Q

IMF, 2014.

World Bank, 2013.

[홈페이지 자료]

국제금융센터, <www.kcif.or.kr>

남아공 통계청, <www.statssa.gov.za>

남아공 노동부, <www.labour.gov.za>

남아공 중앙은행, <www.resbank.co.za>